50과 성령의 열매 - 이무열 목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교사의 직분을 맡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기에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합니다.

저희에게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하나님께서 늘 덧 입혀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또한 넉넉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다음 주 공과 교육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들은 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이들에게 그 귀한 말씀이 전달 될 수 있도록 그 어린이들에게 심겨 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제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공과 교육 주제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입니다.

본문이 갈라디아서 5장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을 읽어볼 텐데 전체를 다 읽을 시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몇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는 이유는 가끔은 우리가 분반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에 대한 충분한 묵상보다는 우리에게 제공 된 머릿돌의 내용을 참고하면서 분반의 준비를 공과의 준비를 하는 그러한 위험도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일부러 본문 말씀을 일부라도 함께 읽었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목표를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구원받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한다.

두 번째로 내 생활 중에 맺은 열매를 살펴봄으로 신앙 상태를 점검하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한다.

이제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과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얼마만큼 맺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척도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내 자신의 신앙도 살펴보고 또 결심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입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한 가지는요 머릿돌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한 사람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어난 시기도 비슷하고 덩치도 비슷하고 모든 외적인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두 개가 싸우게 되면 어느 개가 이길까?

너무도 많이 들었던 예화로 당연히 먹이를 많이 준 개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올라오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어떤 소욕을 따르고 어떤 소욕에 늘 내 생각을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 또한 우리 삶의 결과 또한 달라 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예화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도입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예를 하나 들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실제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해보고 그러한 상황에 어린이들이 처했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가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엄마가 내가 아끼는 물건을 지저분하다고 또는 여기저기 마음대로 흐트러져 있다라고 해서 버렸다면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친구가 장난을 심하게 걸어온다면 때론 내 별명을 부르면서 놀린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이들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갈등 상황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해본다면 그건 충분히 아이들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도입을 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예를 하나만 들어 뒀던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함께 유인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1절 말씀에서 첫 번째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요 우리로 자유케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유를 말하는가?

거기 3가지를 정리를 해놨는데요

첫 번째로 죄의 종 된 위치에서 행방되는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유인물에 찾아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셨을 때에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종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죄의 종 된 돼서 해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약속이죠.

두 번째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뒤를 읽어 보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 율법을 읽을 때 마다 마음을 덮고 있는 수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하므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덮었던 수건이 벗어지는 그림자로 주어졌던 율법에 메여있지 않고 율법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있을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 이죠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5장 4절 제가 읽어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거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의 목적중(여기 다시 들어보세요 9분40초) 하나는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러한 가르침 속에 사실은 핍박을 피하고자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숨어있다라는 것을 지적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해방 된 종이 다시 종의 위치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과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방종을 뜻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완전케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자유는요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이고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어서 메어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위에 올라서서 온전한 자유와 완성을 이루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는 그러한 율법을 하님께서 한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온 율법은 네 이웃사랑하기를 네 몸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가운데서 율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는 구원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율법을 지키고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그것이 진정한 율법으로 부터의 자유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로 삶 속에서 선택의 자유가 있다 라고 그 유인물에 적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 무슨 말을 할지 우리 스스로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자유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대상과 기회가 있다 라는 것을 역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그 선택의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소욕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요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부로 사용을 했던 검은 개와 흰 개의 이야기처럼 우리 속에 두 법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기에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법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구원 받은 이후에 계속해서 그 두 법 사이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8장 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을 쫓으면요 결국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지요

성경 갈라디아서 우리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가도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법칙에 이야기를 읽다보면

첫 번째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인간은 선택의 자유가 있고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오직 자신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아 일어나기 싫다라고 하면서 뒹굴적 거릴지 아니면 아! 오늘 하루 새로운 날이 주어졌구나 하고 벌떡 일어날지

또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반갑습니다하고 웃으면서 인사를 할지 아니면 그냥 바쁘게 바쁘게 지나가 버릴지

하기 싫은 일이 나에게 주어 졌을 때에 아! 내가 이러한 일들까지 할 만큼 인정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또 이런 일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투정을 할지

화가 날 때에 내가 직접 화를 표현을 할지 아니면 지나쳐 버릴지

모든 것에 있어서 순간의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선택했던 모든 결과들이 또한 쌓여서 천국에서의 내 모습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지요

그렇지만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을 때에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자기에게 책임이 있다 라고 성경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들 그 자유에 의한 선택에 있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 지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가 내게 있지만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내 나중의 모습을 결정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고 또한 교회 가운데 약한 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 사도가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분이 스스로 결심을 하시기를 만일 형제가 실족하는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자유란 내게 주어진 자유를 하나님과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스스로 제한할 것인지, 아닌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 내가 형제 자매님을 위해서 참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은요 결과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선택은 나 자신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영향을 생각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 의지를 가지고 내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우리가 가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에 의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지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랐던 육체를 따랐던 결과가 어떠한지를 설명을 해주십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분리를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상숭배 모습과 이단의 모습이지요.

도덕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인간과 인간, 사람 사이에서의 문제입니다.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투기입니다.

육체의 일을 좇아 좇았다 육체의 소욕을 좇은 결과는요 하나님에게 죄가 됩니다.

도덕적으로 죄가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신겁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 9가지고 나오죠?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모습은요 예수님의 인격을 상징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았냐?

성령의 열매 가운데 몇 가지나 내게 열매 맺고 있느냐 하는 것은 내 신앙이 얼마만큼 자랐느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신앙생활가운데서요 우리는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자유를 올바로 사용 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얻을 겁니다.

참고로 1~2학년 머릿돌에서는 자유와 선택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각각 어떤 뜻을 설명하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쉽게 설명이 돼 있어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론 부분에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빛의 열매에 대해서 적어봤는데요 그 뒷부분에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교훈을 주고 계셔서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제가 8절까지라고만 적어놨네요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주께 기쁨이 될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결정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성령의 열매들

이 나타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매 맺는 삶의 모습이 그렇게 쉽지 만은 않을 겁니다.

거기 참고가 될 만한 예화를 하나 적어 둬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바른 마음 많은 노력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화가의 작업실 문에다가 바른 마음 많은 노력이라고 써붙여놨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왔다 갔다하는 가운데서 후배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형, 바른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야?"

"많은 노력은 또 뭐고?"

후배가 물어보는 질문에 이 화가는 대답을 합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전거를 배우는 이 화가가 후배와 함께 동네를 자전거를 타고 돌게 됩니다.

그런데 자전거 뒤에서 붙잡아 주면서 가르쳐주는 후배가 뒤에서 쳐다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형, 넘어지지 않으려면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고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해"

그때 이 화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았다. 고맙다."

"바른 자세 많은 페달 바른 자세 많은 페달"

바른 마음 많은 노력

우리가 마음에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품은 마음을 또한 실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바른 마음을 먹고 바른 노력 많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들이 맺히리라 확신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관사하시고 저희의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고 내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허락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기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형제 자매의 유익과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능히 내게 주어진 자유조차도 스스로 제안을 할 수 있는 성장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학생들이 또한 그러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학생들이 성장하여 더욱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